

2024. 3. 12.(화)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3월 1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 자료

담당부서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02-2133-7400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6쪽

노후준비지원팀장

이수미

02-2133-7414

### 서울시, 폐지줍는 어르신 생계부터 안전까지... 안정적 노후생활 밀착지원

- '일자리', '생계·주거', '돌봄', '안전' 등 「4개 분야 종합대책」 마련... 2년마다 실태조사
- 현재 2400여명이 폐지 수집중... 76세 이상 고령 65%, 경제적 이유가 75%
- 건강 고려한 저강도 공공일자리 연계, 정기적 가정방문으로 안부확인·일상지원
-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 선정해 생계비 지급, 보증금·임대료 지원해 주거안정
- 폐지수집시 교통·안전사고 예방위해 경량리어카 안전장비 지급, 교통안전교육 실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에게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저강도 일자리를 연계하고 혼자 사는 어르신은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 확인과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폐지수집을 계속하길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관련 공공일 자리를 연계해 급여방식으로 폐지 판매대금을 지급한다. 위기에 놓인 어르신들은 긴급복지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생계비·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서울시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일자리 ▲생계·주거 ▲돌봄 ▲안전 4대 분야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11일(월) 발표했다.

- 현재 서울 시내 폐지수집 어르신은 2,411명('23년 기준)으로 75% 이상이 경제적 이유로 폐지를 줍고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7명(65%)가량이 76세 이상 어르신이었고, 여성이 60%에 달했다. 평균수입은 월 15만원에 그쳤다.
- 주 5일 이상 폐지를 줍는다는 답변이 50% 이상,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이 37%였다.

< 2023년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2,411명 실태조사 결과 >

- 여성 60%, 76세 이상 65%, 80세 이상 25%
- 기초수급자(차상위포함) 23%, 기초연금 수급자 72%
- 폐지수집 이유 : 경제적 어려움 75%
- 주 5일 이상 50%, 1일 3~6시간 수집활동 52%, 평균수입 월 15만원
- 활동상 어려움 : 소득감소 65%, 건강 42%, 교통사고 위험 9% (중복응답)

**<① 일자리: 어르신 건강 고려한 저강도 공공일자리 연계해 안정적 수입 보장>**

- 서울시는 우선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건강 상태와 상황을 고려한 낮은 강도의 일자리를 적극 지원한다. 노인이 노인의 말벗이 되어주고 안부를 확인하는 노노(老老)케어, 급식·도시락 배달도우미 등 1대1 상담을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연계한다.
- 올해 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8만 9,088개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한다. 지난해 7만 5,830개 대비 13,258개(17.5%) 늘어난 역대 최대 수치다.
- 익숙함, 혼자 일하는 방식 선호 등 다양한 사유로 폐지수집을 계속 하길 원하는 어르신은 노인 공공일자리 중 하나인 ‘폐지수집 일자리 사업단’을 연계해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찾는다.

- 올해 폐지수집 공공일자리는 13개 자치구, 총 1,253개. 폐지수집 후 구와 협약을 맺은 공동판매처로 갖다주면 평균수입의 두배가량 (최고 38만원, 평균 30만원)을 폐지판매대금을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 폐지수집 일자리사업단은 어르신이 수집한 폐지 등 판매 수익과 보조금을 합해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0여년 전부터 폐지 줍는 일을 했어요. 하루종일 일해도 하루에 4천원 벌까말까 했어요. 그러다 1년 전에 고물상에서 알려줘서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똑같이 폐지를 줍는데 수입이 두 배나 되니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은평구 불광동, 조모 어르신(여, 84세)>

### <② 생계주거: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으로 선정해 생계비지급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

- 둘째, 건강 등의 이유로 폐지수집 일을 자주 하지 못해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주거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은 서울형 긴급복지대상자로 선정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희망온돌기금 등을 통한 주거비 지원 등 빠른 구제를 펼친다.
- 소득조치 등을 통해 기존에 추진중인 서울형 긴급복지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생계비(1인기준) 71만원, 의료비 및 주거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는 희망온돌기금과 서울형 주택바우처사업을 통해 연 650만원 이하의 임대보증금과 월 8만원 (1인가구기준)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 <③ 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연계 안부확인일상지원,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건강관리>

- 셋째, 홀로 생활하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경우 각별한 보살핌이 더욱 필요한 만큼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통해 주1회 이상 직접 방문해 안부 확인과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자조모임 참여도 안내해 사회적 고립도 예방한다.

○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저소득어르신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전화·방문·IoT를 활용해 안전을 확인하고 이동 및 가사 지원 등 일상을 돕는 사업이다.

□ 이와 함께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가 주기적인 건강관리(2개월 1회)와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엔 AI·IoT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가정에 제공해 비대면으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다.

○ 방문간호사가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체중계, 손목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와 AI스피커 등 AI·IoT 기기도 제공해 실시간으로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④ 안전: 폐지수집시 교통·안전사고 예방위해 경량리어카 안전장비 지급, 교통안전교육>

□ 마지막으로 폐지수집 중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의 체형 등을 고려한 ‘경량 안전 리어카’와 야간에 인식하기 쉬운 야광 조끼·밴드·장갑 등 안전용품을 기업후원과 연계하여 지급한다. 이와 함께 흑서기·흑한기 대비 용품(쿨타월, 방한모, 방한복 등)도 지원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서와 협력해 교통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현재 서울에만 2,400여 명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밤낮으로 거리에서 일하고 있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용품 지원부터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일자리 제공 등 사회안전망을 최대한 가동한 종합적인 지원과 보호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 2024년도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계획

##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4. 3월 ~ 12월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폐지수집 어르신(2023년도 실태조사 기준 2,411명)
- 지원분야 : 생계·주거, 일자리, 돌봄, 안전
- 지원방법 : 추진부서(6개부서)별 지원

## □ 분야별 지원계획 개요

(단위:백만원)

분야	사업내용	'24년 예산	소관부서
생계·주거	① 사각지대 폐지수집 어르신 <b>긴급복지(서울형) 지원</b> - 생계형 폐지수집(저소득) 어르신의 위기상황 해소	15,860*	안심돌봄복지과
	② 주거취약계층 <b>주거비 지원</b> - 희망온돌기금 및 주택바우처 활용, 임차보증금·임차료보조 등 어르신 주거 안정성 확보	760* 4,800*	안심돌봄복지과 주거안심지원반
일자리	③ 폐지수집 어르신 <b>일자리 사업</b> -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한 안정적 소득 보장 추진 - 일자리사업단 등 운영, 폐지수집 활동보조금 지급	3,363	어르신복지과
돌봄	④ 폐지수집 어르신 <b>실태조사로 맞춤형 지원 토대 마련</b> - 2년 주기 실태조사 및 욕구 조사 실시	비예산	자 원 순 환 과
	⑤ <b>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연계로 안정적 생활 지원</b> -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지원, 민간연계 등 필요한 분야 맞춤형 서비스 제공	56,579*	어르신복지과
안전	⑥ 폐지수집 어르신 <b>방문건강관리</b> - 2개월마다 방문, 건강문제 유형에 따라 맞춤형건강관리	비예산	보건의료정책과
	⑦ 안전한 폐지수집 활동을 위한 <b>안전용품 지원</b> - 폐지수집 활동 중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	비예산	어르신복지과
	⑧ 안전사고 대비 맞춤형 <b>안전교육 실시</b> - 교통안전 규칙, 안전 취약지역 안전관리 등 교육	비예산	교 통 운 영 과

\* '생계·주거', '돌봄' 예산은 해당 사업의 24년도 총 예산액으로, 이를 활용하여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 □ 최근 3년간 지원현황

분야	지원내용	지원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생계/주거	긴급복지(서울형) 지원	20명 (6,251천원)	8명 (4,000천원)	8명 (5,000천원)
	임차료 보조 (주택바우처, 희망온돌기금)	9명 (4,320천원)	10명 (5,320천원)	3명 (1,265천원)
일자리	시장형·공익형 일자리 제공	972명	969명	1,253명
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342명	713명	309명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등	2,060명 (19,628건)	2,230명 (18,711건)	2,255명 (28,186건)
안전	안전용품 등 물품지원	1,600명(안전용품 500명(방한복))	1,600명(안전용품 500명(방한복))	1,800명(안전용품 500명(방한복))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	-	-	83명

## □ 실태조사 결과

### 〈※ '23년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 ◆ 조사기간 : '23. 5월~6월
- ◆ 조사대상 : 25개 자치구 관내 폐지수집 어르신 2,411명
- ◆ 조사방법 : 자치구 공무원이 재활용품수집상(고물상) 방문, 대면조사

#### 〈기본현황〉

- (성별/연령) 여성 60%, 76세이상 65%, 80세이상 25%
- (주거현황) 독신가구 37%, 전/월세/무료임대 43%
- (복지수급)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포함) 23%, 기초연금 수급자 72%,

#### 〈폐지수집 실태〉

- (수집이유) 경제적 어려움 75%,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25% ※ 중복응답
- (수집활동) 주 5일 이상 50%, 1일 3~6시간 52%
- (평균수입) 월 15만원
- (활동상어려움) 소득감소 65%, 건강 42%, 교통사고 위험 9%, 수집경쟁 9% ※ 중복응답

#### 〈욕구조사〉

- (지원희망) 경제적지원(생계,의료,주거) > 리어커 등 물품 > 식료품 및 생필품 > 일자리 順
- (일자리) 노인일자리 참여중 또는 참여경험 49%

□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실시 (2023년 7월)**

